



7 그린발레단 박경숙 단장·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진시영(오른쪽) 작가의 작업실 입구에는 박경숙 단장과 함께 무대에 올린 '빛의 정원' 공연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발레와 영상 만나 '빛으로 더 빛난 무대'

지역에서 실험적인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그린발레단 박경숙(여·56·광주여대 무용과 교수) 단장과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43) 작가는 각자의 예술 영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다. 하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양보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난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말이다.

지금까지 2편의 공연을 함께 무대에 올린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그린발레단이 광산문화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되면서부터다. 박 단장은 그해 정통발레를 벗어난 실험적인 공연을 준비했고 이를 위한 대안을 찾던 중이었다. 그때 진 작가를 만났다.

"'빛의 정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대미술이었어요. 좁은 무대 폭을 보완하기 위해 빛과 영상으로 무대를 꾸미고 싶었죠. 광주문화재단의 소개로 진시영 작가를 알게 됐어요. 광주에서 '빛'이라는 주제를 미디어아트는 장르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특히 진시영 작가의 이전 작품들을 보자마자 제가 준비하고 있던 공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무대 공연에 영상을 쓰는 것은 2000년도부터 유행했죠. 하지만 진

2012년부터 무대공연 협업
'빛의 정원' '백설공주' 호평
한국 전통 담은 영상 작업
올 9월 국립현대미술관 이어
호주 현대미술관 초대전

역에서 미디어아트와 무용의 만남은 최조였어요."(박경숙)

진 작가는 당시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빛으로 승화시킨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영상에 담아내는 작업을 해온 진 작가에게는 박 단장의 연락이 필연적이면서도 행운처럼 느껴졌다. 더구나 그동안 스포츠 스타 등 활발하게 콜라보 작업을 해온 그것기에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선 '빛'이라는 코드가 통하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시놉시스도 너무 좋았고요. 가장 큰 매력은 공연

에 그냥 영상을 쓰는 게 아니라 영상을 발레에, 발레에 영상을 입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공연 전에 수십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어요."(진시영)

그해 12월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린 '빛의 정원'은 큰 성공을 거뒀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은 것은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서울에서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 '빛의 정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장작자금 사업에 선정되면서 장작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박 단장은 "그때 진 작가와 종신계약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은 다음해인 2013년 좀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 '빛의 정원'이 발레와 미디어아트가 절반씩 녹아 있는 작품이라면 그해 무대에 올린 '백설공주'는 발레에 무게감을 더 한 작품이다. 진 작가가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했다. '마법의 거울'과 '마법의 향아리'가 영상으로 살아나고, 자작 나무 숲이 3D로 구현되면서 박수를 받았다. '백설공주'는 지난해 앙코르 공연까지 했다.

지난해 각자의 예술 영역에서 바빴던 두 사람이 올해 다시 손을 잡았다. 진 작가가 올

해 9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맞은편에 위치한 호주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으면서 함께 작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한 작품이 무대 공연을 위한 거였다면 이번에 준비하는 작품은 미술관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또 박 단장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 '항해'(가제)도 함께할 계획이다.

"항복을 입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가야금의 소리를 라이브 영상으로 구현시켜볼 생각입니다. 아날로그라는 사람의 움직임이 디지털이라는 미디어아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적인 멋을 미디어아트로 승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장르가 되겠네요. 전시가 갤러리에서 펼쳐진다는 느낌보다는 미술관에서 한편의 작품을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 정신없이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싶습니다."(진시영)

"발레는 세계 공통의 몸입니다. 거기에 한국적인 것을 입혀겠다는 진 작가의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작품부터가 저희 두 사람의 제대로된 콜라보 작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상, 사운드, 몸짓 등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일지."(박경숙)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MACHHI-W'

전후세대에 전쟁의 의미는?

'스페이스K-광주' 내달 12일까지
송현주씨 '플레이 그라운드-워'전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다.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코오롱이 운영하는 스페이스K-광주는 3월12일까지 '전쟁'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온 송현주씨를 초대해 '플레이 그라운드-워 게임(Play Ground-War game)'전을 연다.

전투기 플라스틱 모델을 해체한 작가의 작업은 장난감의 매력과 전투기 고유의 조형미를 표현하면서도 파괴와 야만이라는 전쟁의 본질을 아이리니하게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회화 작업 외에 비행기, 무기, 군인 등 전쟁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오브제를 포함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독일의 주력 폭격기를 모티브로 한 'HE-111'은 작가가 상상 무기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든 작품이다. 이 같이 작가의 작품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성 중 하나인 폭력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홍익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송씨는 단원미술대전 최우수상, 석주미술상 특별상 등을 받았으며 1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370-594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일제 전쟁의 상흔들

정혜경씨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책 펴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당시 압록강은 물론 해남 땅끝 마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군사 시설 등을 만들었다.

정혜경씨가 펴낸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광주시(사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찾아 식민지 역사와 전쟁의 상흔을 되돌아보는 책이다.

'국외경제동원의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 2013~2014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현장들을 답사해 만든 결과물이다. 저자는 서구 치평동에 있었던 '치평리 비행장', '화정동 군사시설물', '가네가후치 전남공장', '전남도지사사', '광주신사자리', '광주역' 등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의 흔적을 찾아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네가후치 전남공장에 동원된 10대 방적공장 소녀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처음으로 소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 즐기기 가능한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